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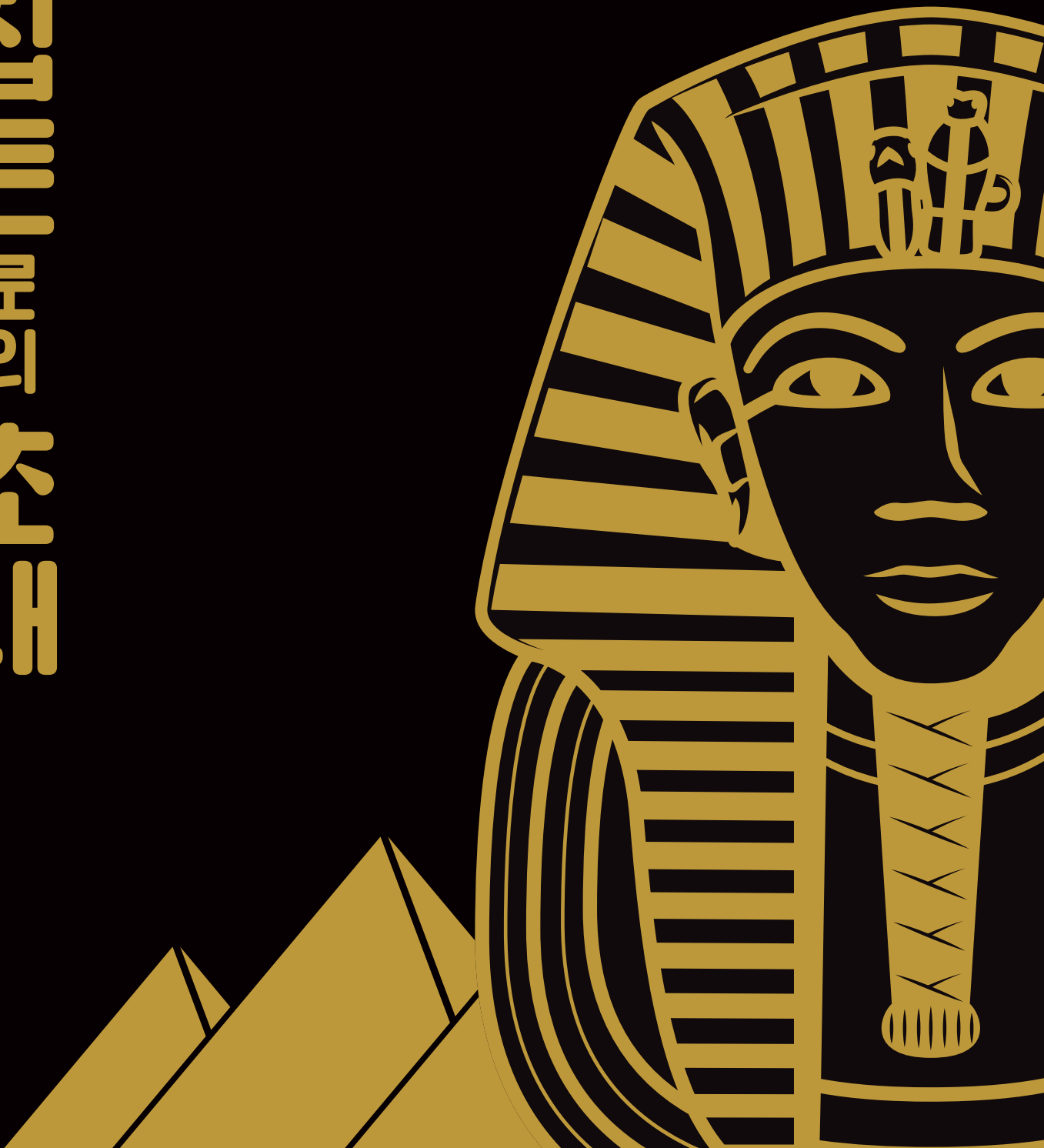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2022. 03. 17_ 08. 17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어린이
전국
함께

고대 이집트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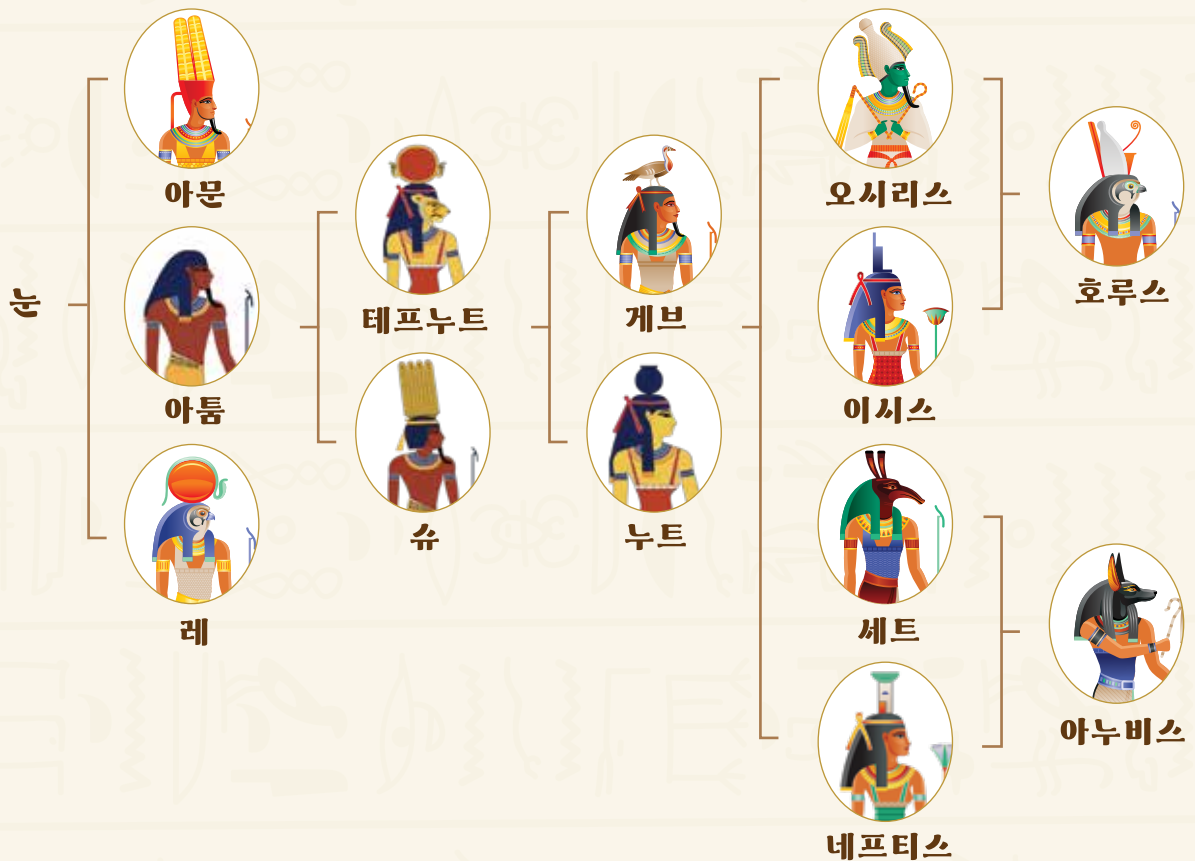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

이집트인의 세계관은 오시리스와 이시스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창조신 아툼의 자녀는 게브, 누트이고 이들은 네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입니다. 이들은 서로 결혼하였어요.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태초의 이집트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는 왕 오시리스를 질투한 동생 세트가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비밀리에 오시리스의 몸 치수를 잴 뒤, 인간 모양의 상자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를 연회에 초대하여 상자로 유인했습니다. 상자에 꼭 들어맞은 오시리스를 그 안에 가두고 나일강에 익사시켰습니다.

마침내 세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냈고, 마법으로 잠시 살려내 아들 호루스를 잉태했습니다. 이시스는 여동생 네프티스의 도움으로 호루스를 몰래 이승에서 키웠습니다. 성장한 호루스는 삼촌 세트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왕이 되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이집트 장례문화의 근간이며, 이집트인의 내세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신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

이시스는 이승에서 아들인 호루스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시스는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데, 이 상도 아들 호루스를 사랑스럽게 안고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오시리스

이 신상은 가슴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왼손에는 지팡이를 오른손에는 도리끼를 쥐고 있어요. 죽은 이와 오시리스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시스, 어린 호루스, 네프티스

세트에게 살해된 오시리스를 다시 마법으로 살려 호루스를 낳은 이시스는 오시리스가 사후세계로 간 뒤 여동생 네프티스와 함께 이승에서 호루스를 키웠어요. 이시스는 세트의 눈을 피해 아들을 숨겼습니다. 미라의 몸통 아래에 놓는 부적으로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호루스를 보호했던 것처럼 죽은 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봉헌한 것입니다.

Q

태초 이집트의 왕이었지만 남동생 세트에게 살해된 후 부활하여 지하 세계의 왕이 된 신은 누구일까요?



이집트와 나일강 : 이집트의 자연환경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리비아,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태동했어요. 이집트인은 사막으로 둘러싼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일강을 따라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강 상류의 비옥한 영양분이 하류로 흘러와 이집트인에게 풍요의 땅을 선물했습니다.



파피루스로 만든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

늪지대 풍경

나일강 주변의 늪지대는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덤 돌에 그려진 늪지대는 이집트의 비옥함을 상징하며, 사후세계에서도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작품에는 파피루스로 만든 작은 배 안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들이 묘사되었어요. 왼쪽 아랫 부분의 새끼를 낳고 있는 하마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동물이 그려진 꽃병

물결모양의 선은 뱀, 커다란 세마리의 동물은 악어 또는 이집트몽구스로 추정됩니다. 사막과 강은 언제나 위험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강은 생명을 살리는 물의 근원이었어요. 악어와 뱀은 나일강과 사막에서 위험한 동물이었습니다. 병에 그린 것은 주술로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Q

‘늪지대 풍경’ 작품에서 새끼를 낳고 있는 00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인 그리고 일상 : 일상도구와 장신구

이집트인은 아름다움을 위해,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남녀 모두 화장품을 발랐어요. 화장품 종류는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드는 연고, 눈으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태양 빛을 흡수하는 아이라이너 ‘콜’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이집트인은 장신구와 부적을 사용했어요. 신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믿었어요.



하토르의 거울

원형 거울의 손잡이는 ‘회춘하다’라는 의미의 상형문자 ‘파피루스’ 식물 모양이에요. 손잡이 일부에는 미의 여신 ‘하토르’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지요.

Q

이집트 신화 속 미의 여신은 누구일까요?



콜을 바르는 도구

‘콜’은 남녀 모두 아이라이너로 사용했던 화장품 종류예요. 아이라인을 칠하면 눈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었고, 먼지와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콜은 암석의 일종인 방연석을 가루로 내어 동물 지방과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칼 손잡이 숟가락

햇빛과 건조함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연고를 발랐어요. 이 숟가락의 손잡이는 재칼 모양이에요. 연고를 바를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큰 칼

고대 이집트인은 돌로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도구는 석회암층에서 발견되는 규질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의 아들, 파라오

파라오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인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은 호루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고귀한 신분으로 여겨졌어요. 파라오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모두의 왕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

이 부조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의 아비도스 신전에서 발견되었어요. 팔을 들고 있는 람세스 2세를 표현한 것으로 그가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이집트의 절대적인 존재이며, 상·하이집트를 모두 통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의 머리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두 왕관을 함께 쓴 머리 조각상이에요. 하이집트의 붉은색 왕관 위에 상이집트의 길쭉한 흰색 원형 왕관이 결합된 모양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의 모습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모두 통치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삶을 넘어 영원으로 : 부적과 꺼묻거리

부적은 예나 지금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방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용도 이외에 죽은 사람을 위한 꺼묻거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부적은 조각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신의 모습을 한 경우도 있었고 심장이나 곤충, 기둥 모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면〉



〈뒷면〉



Q

이 부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인은 심장이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생전의 나쁜 짓까지도 알고 있어 죽은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었지요. 이런 이유로 심장 OOOO라 불리는 특별한 부적을 죽은 자의 심장에 올려두었는데, 쇠뿔구리 또는 풍뎅이 모양의 부적이었어요. 이 부적에는 〈사자의 서〉 제30장의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심장 무게를 다는 심판에서 주인을 배반하지 말도록 심장에게 부탁하는 글이에요.



‘바’ 부적

‘바’는 이집트인들이 초자연적 인격을 구성한다고 믿은 영혼 중 하나입니다. 바 부적은 바가 무덤으로 되돌아오지 못했을 때 바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카마니스켄왕의 샤브티

샤브티shabti는 무덤에 넣는 꺼묻거리예요. 또한 신이 죽은 이에게 저승에서 요구하는 각종 일을 대신하는 하인이지요. 팽이를 들고 있어 농사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샤브티에 새겨진 성각문자 주문은 누비아의 왕 센카마니스켄을 대신해 내세에서 일할 것을 샤브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미라가 완성되기까지

관은 미라를 보호할 뿐 아니라 여기에 죽은 이와 오시리스를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 ‘죽은 이’가 사후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육체를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죽은 이의 생전 모습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시신의 수분을 모두 제거하고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몸속에서 꺼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①

장기를 제거해 카노푸스 단지에 담는다.



②

보존을 위한 향료를 뱃속에 채운다.



③

나트론(자연소다석)으로 시신을 탈수 한다.



④

시신을 아마천으로 싸고 고무진을 바른다.



⑤

관에 안치한다.



파세바카이엔이페트의 관

죽은 이를 위한 안내서 : 사자의 서

고대 이집트인은 죽으면 영혼이 저승의 왕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 받는다고 믿었어요. 죽은 이의 심장은 현세에서의 죄의 무게를 담고 있어요. 이 심장을 저울에 달아 심판을 통과하면 죽은 이의 영혼이 육체로 돌아와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시리스의 심판을 통과해 저승으로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는 여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피라미드의 무덤방 벽이나 관에 새겨져 피라미드 문서라고 하였고, 신왕국 시대에 ‘사자의 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